

영공방위 최전선 누빌 정예 전투조종사 10명 탄생

공군20전비, KF-16 CRT 교육 수료식
공대공·지대지 작전 등 실전적 훈련
공군작전사령관상에 김현우 대위(진)

대한민국 영공방위 최전선에서 활약할 10명의 최정예 전투조종사가 탄생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20전비)은 부대 대회의실에서 ‘21-2차 KF-16 전환 및 작전기능훈련(CRT) 교육 수료식’을 거행했다고 21일 밝혔다.

CRT는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이 전투비행대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대공·지대지 작전 등을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21-2차 교육생들은 2021년 9월 교육에 입과해 약 18개월 동안 KF-16 전투기를 활용한 고강도 과정을 이수했다.

수료식에서 영예의 공군작전사령관상은 김현우 대위(진)가 차지했다. 공군전투사령관상은 허준곤 대위(진), 비행단장상은 이경원 대위(진)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교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환 및 작전기능훈련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관에게 주어지는 작전사령관 표창은 허형석 소령이, 전투사령관 표창은 박강민 대위가 받았다. 우수정비사를 상징하는 비행단

장 표창은 남성운 하사에게 돌아갔다.

김현우 대위(진)는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교관님들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준 정비·지원요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투조종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종 기자

“항공기·장비 상태 언제나 새것처럼”

공군3훈비, 방부관리 경연대회
도장·세척·윤활 등 200여 명 참가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 정비사들이 팀을 이뤄 항공기·장비 방부관리 능력을 겨루고 있다.

3훈비는 21일 “항공기·장비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정비사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일 ‘항공기·장비 방부관리 경연대회’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경연대회는 항공기 방부관리 분야와 장비 방부관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항공기 방부관리 분야는 2인 1조 82개 팀, 장비 방부관리 분야는 3

인 1조 6개 팀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방부관리란 항공기·장비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장·윤활상태를 점검·보강해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다. 특히 봄철에는 기온 상승,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항공기·장비 구성품이 변형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걸 예방하고 항공기·장비 세척·윤활·도장상태 점검에 심혈을 기울인다.

항공기 방부관리 분야에서는 외부 도장, 조종석 내부 청결, 주요 부품의 윤활상태 등 항공기 내·외부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장비 방부관리 분야는 전원공급기 같은 직접 지원장비의 부식·청결상태, 각종 부착



공군3훈련비행단 ‘항공기·장비 방부관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항공정비전대 장병들이 항공기 부식 방지를 위해 외부 세척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물(야광테이프·반사경 등) 상태와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3훈비는 경연대회 성적을 종합해 분야별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일권(대령·진) 항공정비전대장

은 “학생조종사 비행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항공기·장비를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정비품질을 향상하고, 예방정비에 만전을 기해 결전태세 확립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중남미 유일 6·25전쟁 참전국 콜롬비아 전사자 넋 기려

육군15보병사단, 전적비에서 추모식

육군15보병사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1일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지구전적비에서 콜롬비아군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경중(소장) 사단장과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살레스 주한콜롬비아 대리대사, 콜롬비아 국방무관, 최명수 화천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육·해군 등 5100명을 파병했다. 당시 콜롬비아 장병들은 1만5000km 항해 끝에 1951년 6월 1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赫赫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1951년 8월 6일 흑운토령전투를 시작으로 1955년 3월까지 금성지구전투, 김화지구전투, 불모고지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 과정에서 213명이 전사했으며, 488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경중 육군15보병사단장이 21일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지구전적비에서 콜롬비아군 전사자를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부대 제공

이에 사단은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 화천군·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5년부터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 사단장은 “우리는 이름 모를 산야에

서 자유·평화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콜롬비아 참전장병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원 기자

공군 RNTC 후보생 보안의식 함양
11전비, 영진전문대서 특별교육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은 21일 영진전문대학교를 찾아 공군 부사관학군단(RNTC) 후보생 40여 명에게 특별보안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바른 SNS 사용과 군사보안 준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김종현(준위) 문서보안담당관은 군사보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보안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군사자료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철한 보안의식을 갖춘 군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생들이 임관 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사보안을 준수하면서 개인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강의를 청취한 이주원 후보생은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군사보안에 익숙하지 않지만 사례 중심의 보안교육 덕분에 좀 더 이해도를 높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원 기자